

이 유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오랫동안 한 자리에서 사진관을 운영해 왔기 때문에 안정된 단골 고객 덕에 그냥 편안히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 초여름에 개업한 치킨 점의 매연이 사진관으로 불려오면서 신체적 고통과 점포이탈로 인한 사진관 영업손실 등 불안정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 그 이유는 치킨 점 부엌에 후드와 연통 없이 사진관 편에 있는 출입문 위에 강력한 공업용 모터를 그냥 달아 놓고 연기가 천정을 타고 와서 위에 차양과 밑에 받침이 있어서 연기가 갈 곳 없이 사진관으로만 몰려옵니다. 얼마나 독한지 잠시 마시면 속이 뒤집히고 머리가 아프며 밤새 가래가 끓어오릅니다. 7년 가까이 그런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 오후 3시 반 이후에는 치킨 점 문 여는 순간 팬이 돌아가고 저는 악취, 매연을 피해 주변 점포로 뛰어 갑니다. 편의점 앞에 앉아 있을 때는 사진관을 보고 있으니 괜찮지만 뒤편 사무실이나 비오는 때는 사진관 문을 잠가놓고 쪽지를 써 붙여 놓은 채로 딴 데로 가 있는 것입니다.
- 그런데 오후3시부터 8시 사이에는 학생들 퇴교시간, 주부 장보는 시간, 직장인들 퇴근시간이어서 사진관은 그 시간에 반드시 점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 그러나 저는 그때부터 떠돌이 신세입니다. 옆 점포에서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많은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제가 컴퓨터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짧으니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고객들도 걱정이 많으셨고 또한 오셔서 기침을 자꾸 하시면 미안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 제가 옆방에 있는데도 저를 못 찾는 일이 발생하고 자연히 손님이 줄어

들고 저는 힘들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도저히 책상에 앉아서 있을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 옆 창고를 전전하면서 짧은 공부를 하니 도저히 계획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 사진관 공기 문제만 편안하면 모든 것이 순조로웠을 텐데 이제는 거의 힘들어지고 시험도 1차보기도 걱정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업이 날로 어려워지고 저의 고객분들과 주변 지인들의 권고에 힘입어 주인 할머니께서 싫어하시는 구청에 민원도 넣었고, 환경과 2회, 위생과에서 6회나 오셨지만 해결이 안 되니 구청에서 분쟁조정위에 가보시라는 권유에 제가 방문상담을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재정을 구하는 바입니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 2013년 오픈하기 위해 인테리어 하던 중 사진관 사장님이 환풍기를 교체하라고 해 교체하였고, 냄새가 위로 올라가게 환풍기 밑에 아크릴판을 설치하라고 하여 설치하였습니다.
- 덕트를 2층에 설치하니 민원을 넣어 옥상에 설치하고 난 후 구청 직원 분께서 확인 후 냄새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 2016년 초에 가게 앞에 현수막을 걸었는데 현수막이 사진관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고 하여 현수막을 철거하였습니다.
- 2016년 중에 에어 간판이 사진관을 가려 영업을 방해한다며 에어 간판을 세우지 못하게 하여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 2016년 하순, 저희 가게 앞에 있는 의자가 사진관을 막아 영업을 방해한다하여 의자를 반대편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 2018년 천정과 벽 사이에 냄새가 난다하여 실리콘 공사를 하였습니다.
- 2018년 덕트가 있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또 설치하라고 하여 건물주께서 설치해주겠다고 저에게 물어봐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큰 아들님께서 반대하여 설치 못했습니다.

- 2019년, 사진관 사장님이 민원 넣어 위생과, 환경과 직원 분께서 수회 방문하여 확인 후 이상 없다고 하였고, 사진관하고 잘 지내라면서 가셨습니다.
- 2019년, 구청 직원 분께서 사진관 사장님이 주방에 환풍기를 설치하라고 하여 벽을 헐고 하려고 하였으나, 벽에 파이프가 있어 못 뚫는다고 하여 문을 뜯고 설치하였습니다. 한 달쯤 지나 구청 직원 분께서 사진관 사장님이 냄새가 더 난다고 하여 벽을 막고 환풍기를 철거하라고 하여 철거하였습니다.
- 2019년에 철거 후에도 또 다시 냄새가 난다하여 다시 환풍기를 설치하였습니다.

2. 사실조사 결과

가. 분쟁지역 현황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인근에 지하철 7호선 중곡역이 위치하며, 능동로(왕복4차선) 변 주변에 상가 등 사업장 밀집지역으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니다.

나. 당사자 영업 건물 현황

- 위 치 : 00구 00로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 면 적 : 1,164.08 m^2
- 규 모 : 지하1층, 지상4층
- 주 용 도 : 근린생활시설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용승인 : 1982. 9. 1.

다. 신청인 영업 현황

- 상 호 : 00스튜디오

- 개업일 : 1994.7.17
- 업종 : 서비스 사진관
- 면적 : $17m^2$
- 임대료 : 보증금 750만원, 월세 60만원

라. 피신청인 영업 현황

- 상호 : 00치킨
- 개업일 : 2013. 05. 09
- 면적 : $51.25m^2$
- 업종 : 음식
- 임대료 : 보증금 1,500만원, 월세 100만원

마.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 점검 결과

- 치킨점을 상대로 익명의 냄새민원이 관할구청(보건위생과)에 5차례 제기되어 냄새 배출시설 개선 등의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다.

3.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영업손실 피해 평가

- 당사자 의견과 현지조사 결과 및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측정 결과를 토대로 판단한다.
- 영업피해액 산정기간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분쟁은 2013년부터 시작되었으나, 환경분쟁 소멸시효 3년을 고려하여 2016.09.28.부터 분석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에 의해 매출 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근거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하여야 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상을 제출 하지 아니하고, 신청인이 수기로 작성한 증명사진 촬영 통계표 및 그를 기본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여 제출하였다.

[표 1] 신청인 매출자료

년도	촬영 건수	금 액(원)	비고
2010	773	11,595,000	
2011	723	10,845,000	
2012	656	9,845,000	
2013	635	9,525,000	
2014	640	9,600,000	
2015	658	9,870,000	
2016	556	8,340,000	
2017	524	7,860,000	
2018	412	6,180,000	
2019	320	4,800,000	

주) 금액은 촬영건당 15,000원으로 계산

- 사진관은 종래의 시스템 즉 사진관에서 촬영하고 사진을 수령하는 방식에서, 자신이 사진을 촬영하여 인화 전문점에 인터넷으로 촬영 화면을 전송하고, 인화 전문점에서는 인화만 해주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그 요금은 규격에 따라 200원에서 2,000원/매 수준이며, 신청인의 영업방식도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그 수요도 점차 줄고 있다. 신청인이 제출한 10년 통계자료는 악취에 의한 매출 변화보다는 최근의 동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신청인은 10년간 15,000원/매를 계산하였으나, 최근의 지하철 역사 등에서 설치된 자동 촬영의 경우 그 요금이 저렴하다. 또한 증명사진 촬영 통계는 신청인의 자료에 의한 것이라 해도 전문가 수준의 사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러한 시설이나 영업장 환경개선을 위한 변화도 없다.
- 복합악취 측정 결과
 - 측정일시 : 2019.12.18.(수)
 - 측정지점 : 부지경계선(출입문)
 - 측정결과
 - 1차 : 4도(기준 : 10배 이하)
 - 2차 : 4도(기준 : 10배 이하)

※ 복합악취피해 인정기준

근거	대상지역	희석배수(배)	비고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 생활소음 수인한도	주거지역	10	
「악취방지법」 상의 악취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주거지역	15	

나. 건강상 피해 평가

- 피해 영향을 입었을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건강상의 피해영향을 입었을 개연성이 판단되지 않는다.

4. 판 단

- 악취 측정농도가 희석배수 4배 이하로 「악취방지법」,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피해영향이 크지 않으며, 피해를 입증할 구체적인 사실관계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 점 등으로 악취로 인한 영업손실 및 건강상·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5. 결 론

- 본 위원회에서는 현지 조사결과, 관련서류, 전문가 의견, 유사 사건의 피해배상 사례 및 당사자의 주장과 진술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정본입니다

2020년 2월 28일

서울특별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